

아동의 그림일기에 나타난 글과 그림 간의 의미 구성 방식

An Analysis of Meaning Construction between Texts and Pictures in Children's Picture Diaries

서수현(Soo Hyun Seo)¹⁾

옥현진(Hyunjin Ok)²⁾

ABSTRACT

Digital technology has advanced rapidly and it is anticipated that multimodal ways of meaning-making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Consequently, teaching multimodal literacies is becoming a major issue in educ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use of picture diaries as a means of teaching multimodal literacies. Picture diaries are one of the basic and unique multimodal texts used in lower elementary level classes in Korea. A further advantage is that it is a promising text model which can be taught in unplugged ways. In order to explore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using such picture diaries,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ways in which twenty four 1st graders in an elementary school constructed meaning with written language and pictures in composing picture diaries. 251 picture diaries composed during several months of their 1st grade period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utilized both written language and pictures in diverse and creative ways to provide their audience with more comprehensive mean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eachers need to consider their students as active multimodal meaning-makers and provide their students with more opportunities to practice multimodal meaning-making and share their experiences.

Key Words : 그림일기(picture diary),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s), 복합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

¹⁾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ounjin Ok, Dept. of Elementary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ok@ewha.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 론

그림일기는 문식성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아동이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며 기억할 만한 사건을 글과 그림을 통해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 장르이다. 그림일기는 아동이 본격적인 문자언어 중심의 표현 활동, 즉 글쓰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인지적·정의적 어려움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그림을 통한 표현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일기는 그간 교육의 장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기호 체계를 한데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 즉 복합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 Cope & Kalantzis, 2000; Jewitt & Kress, 2003)이 문식성 교육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그림일기는 그림책과 더불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문식성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복합양식 문식성과 관련된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그림일기가 효과적인 학습 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복합양식 문식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이른 시기부터 필요하다는 논의는 외국에서만 아니라 최근 국내 학계, 특히 국어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실의 하나로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도 복합양식 문식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 요소가 반영되었다¹⁾. 하지만 정작 아동들이 현재 어떤 형태의 복합양식 텍스트를 수용·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복합양식 문식성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들이 복합양식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한 아동들의 그림일기를 토대로 하여 글과 그림 간에 의미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그림일기에 주목하는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아동의 복합양식 텍스트 생산의 측면이다. 아동들은 문식성 발생 단계(emergent literacy, Teale & Sulzby, 1986)에서부터 그림책, 만화영화 등의 다양한 문식성 후원자(literacy sponsors, Brandts, 1997)들을 통해 복합양식 텍스트를 접하고 있지만(Seo & Ok, 2012), 정작 아동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모습의 텍스트를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복합양식 텍스트 생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림책과 관련하여 아동의 이해 양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어 온 반면(예를 들어 Hyun, Park, & Cho, 2011; Shim & Hyun, 2010), 이와 유사한 형태의 텍스트인 그림일기 표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림책 읽기와 쓰기 표현 활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성과(Lee, Cho, & Hyun,

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2007년 이후 복합양식 문식성과 관련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생산과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일을 정리하여 그림일기를 쓴다’(1학년 쓰기 영역),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게 그림책을 만든다’(4학년 쓰기 영역), ‘영상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9학년 쓰기 영역) 등의 성취 기준이, 그리고 복합양식 텍스트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만화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를 해석한다’(9학년 읽기 영역),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1학년 문학 영역) 등의 성취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2011)를 통해 유아의 표현 활동에 대해 복합양식적 텍스트 이해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림일기는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의 지원 없이도 아동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표현하는 그림일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의 복합양식 문식성 발달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언어와 그림의 관계 측면이다. 언어와 그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호학 분야(Cho, 2010; Choi, 2004; Choi, 2005; Joung, 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책 연구 분야(Byun & Hyun, 2002)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광고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 다를 뿐이며(Kang, 2012; Shin, 2000),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이 다른 텍스트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그림일기는 아동이 언어와 그림의 관계를 표현한 결과물로, 광고 텍스트와 같이 성인이 의도적으로 언어와 그림의 관계를 표현한 결과물과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림일기의 언어와 그림을 분석하는 작업은 기존의 연구 결과로 설정된 언어와 그림의 관계를 보다 풍성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그림일기는 ‘글과 그림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하나의 단위로, 그 내부에서는 글도 그림도 보조적인 기능이나 삽화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는’(Nerlich, 1990 : 2) 아이코노 텍스트(iconotext)로 규정된다. 그림일기의 구성

요소인 글과 그림은 대상을 형상화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라는 점,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할 때에 확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상 기호(icon sign)인 그림이 대상을 표상하는 가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데에 비해, 관습 기호인 글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가시성이라는 특성²⁾을 갖기 때문에, 이 두 대상은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인해 그림일기를 글만으로 또는 그림만으로 해석해서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그림일기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에 주목할 때에 대상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글과 그림이 각각 개별적인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그림일기의 두 요소는 서로 대립할 수도 있고 상보적일 수도 있는, 다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일기는 글과 그림이라는 개별 구성 요소가 각각의 내용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 두 요소의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글과 그림의 관계는 그림의 다의성을 글이 한정해 주는 정박(ancrage)과 글과 그림이 서로 교대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계(relais)로 설정할 수도 있다. 광고나 보도 사진을 접할 때에 사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카피나 설명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박의 기능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정박은 ‘확실하지 않은 기호들에 대한 공포와 싸우기 위해서, 시니피에들의 고정되지 않은 연쇄를 고정’(Kim, 1993 : 95)시키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정박이 언어를 우위에 둔 관계 설정

2) 글에서는 선형적-순차적인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지시적인 의미가 중요한 데에 비해, 그림에서는 총체적-동시적인 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연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Cho, 2010 : 283).

이라면, 중계는 언어와 그림에 동일한 위상을 부여한다. 만화나 영화를 볼 때에 그림 또는 언어 둘 중 하나를 배제한 채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중계의 기능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만화나 영화 속 대사에는 설명이라는 기능을 넘어서서 그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의미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계의 관계 속에서 언어와 그림은 상보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텍스트의 전체 메시지를 산출한다 (Kim, 1993).

Martinec과 Salway(2005)는 앞서 언급한 정박과 중계의 개념과 함께 Halliday(1994)가 제안한 개념인 체계와 논리적·언어적 관계에 기반하여 글과 그림의 결합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글과 그림의 의미가 결합하는 관계를 대등한 관계와 대등하지 않은 관계로 대별한 후, 다시 대등한 관계는 글과 그림이 독립적인 관계와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는 그림이 글에 종속된 관계와 글이 그림에 종속된 관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그림과 글의 논리 의미 관계를 확장과 투사로 대별한 후, 확장은 정교화³⁾, 확대, 심화⁴⁾로, 투사는 발화와 관념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글과 그림의 관계를 탐색한 이들 연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한다. 동시에, 이들 연구는 사람들의 이해와 표현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합 관계를 함께 이해할 때에 보다 확장됨을 시사한다.

그림일기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없지만, 유사한 특성을 가진 텍스트인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다. Schwarcz(1982)는 글과 그림의 상호 작용을 크게 일치(congruency)와 일탈(deviation)로 나눈 후, 일치 관계를 축소, 정교화, 부연, 보충, 교차전진으로, 일탈 관계를 글과 그림이 상반되고 교차하는 경우와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Nikolajeva & Scott(2000)에서는 글과 그림이 대칭인 경우, 서로를 풍부하게 해 주고 보충하여 주는 경우, 대위와 대조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이들의 관계를 세분화하였다.

국내 연구(Hyun *et al.*, 2004)에서는 그림책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책에서의 글과 그림의 관계를 대응 관계, 상호보완 관계, 굴절 관계로 정리하였다. 대응 관계는 그림책에서 글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그림이 글보다 더 단순화되어 제시되는 축소, 그림이 배경이나 활동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정교화가 포함된다. 상호보완 관계는 글과 그림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 각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글에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그림이 자세하게 보여주는 확장, 그림이 글의 내용을 보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보충, 글과 그림이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교차전진이 포함된다. 굴절 관계는 전체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글과 그림이 서로

3) '정교화'는 다시 하위 범주로서 설명과 예시로 나눌 수 있다. 설명이 그림과 글이 동일한 설명력을 갖는 경우라면, 예시는 둘 중 어느 하나가 보다 설명력을 갖는 경우를 일컫는다. 예시에는 글이 더 설명력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림이 더 설명력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 '심화'는 다시 시간, 장소, 인과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인과 관계는 이유를 나타내거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상반되게 제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글과 그림의 내용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이러니, 글과 그림의 관점이 서로 다른 대위가 포함된다. 이들 연구는 모두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결합이 의미 구성을 위한 기호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물론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각각 의미 구성을 위한 기여를 하기도 한다. 그림책에서 글의 역할은 담론(discours)과 레시(récil)로 나눌 수 있는데, 담론이 메시지가 어떤 상황, 어떤 문맥에서 제시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레시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개를 보여주는 것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그림책에서 글은 때로는 담론의 역할을 하면서 그림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레시의 역할을 하여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기도 한다(Park, 1995). 한편, 그림책에서 그림은 배경 설정, 인물의 정의와 전개, 구성의 발전, 다른 관점의 감상 제공, 원문의 일관성에 대한 기여, 맥락의 강화 등의 역할을 한다(Fang, 1996). 이러한 역할로 인해 그림책의 그림은 언어로 시각적 정보를 해석하는 것 이상을 표현하고 글이 표현하는 대상의 유형과 특징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기여한다(Byun & Hyun, 2002).

이와 같은 연구들은 그림책이라는 내러티브 속에서 그림과 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는 점, 글과 그림이라는 각각의 요소가 그림책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 등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제안한 틀을 아동의 그림일기 분석에 그대로 가져 오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대개 그림일기의 글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열하거나 인상

깊은 일을 쓰고 그림은 한 가지 장면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러티브 속에서 그림과 글이 각각 전체의 의미 구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그림책의 전개 양상과 상이하다. 또한, 그림책의 저자와 달리 그림일기를 작성하는 아동은 전체적인 의미 구성의 측면에서 글과 그림의 역할을 정교하게 배분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림책과 다른, 그림일기 표현의 이와 같은 속성은 곧 그림일기의 글과 그림의 분석을 위한 틀을 연역적으로 설정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아동의 그림일기를 통해 귀납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광주광역시의 A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속한 24명이다(남자 아동 10명, 여자 아동 14명). 담임교사와의 면담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학급의 아동들은 초기 단계의 쓰기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체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그림일기라는 표현 양식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해당 학급의 모든 아동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시작 전에 연구 대상 학급의 담임교사를 수차례 만나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 그림일기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장르에서 글자와 그림이라는 기호를 이용해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아동들의 그림일기 제작⁵⁾ 과정에 교

5)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그림일기 텍스트 생산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제작’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그림 일기의 복합양식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다’나 ‘쓰다’는 표현은 어느 한 기호 체계에만 적절한 표현이므로 이 둘을 결합한 제 3의 용어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또 가정에서 그림일기를 제작할 경우 부모들의 개입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림일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림일기 제작이 끝난 후 담임교사는 각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 표현 의도를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자료는 녹취 후 전사되었다. 매주 또는 격주로 제작된 그림일기는 담임교사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 녹취 자료와 함께 연구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주었다. 연구자들은 그림일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담임교사와 수시로 만나 각 아동에 대한 배경 정보나 그림일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메타 정보를 수집하였다.

아동들은 1학년에 입학한 뒤 4월부터 6월까지 1~2주에 한 편씩 총 255편의 그림일기를 제작하였다(1인당 평균 10.6편, 최대 12편, 최소 9편)⁶⁾. 그림일기 공책은 아동들이 각자 마련하였으며, 문구회사마다 조금씩 디자인의 차이가 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과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펼친 면에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동들이 제작한 그림일기 중에서 그림만 그렸거나 글만 쓴 경우(총 4편)에는 이 연구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들은 근거이론(ground theory)의 원리에 따라 그림일기 데이터가 처음 수집된 후부터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들이 제작한 그림일기 텍스트, 녹취 자료, 교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분석

그림일기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거나 하루 중 특정 지점을 초점화하여 시간 순으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는 어떤 매체와 기호작용을 동원하는가에 따라 그 표현양식이 각기 다르다(Ryu, 2010). 구술 내러티브가 화자 스스로나 제3자의 의미(경험과 사유)를 음성언어와 각종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구성해 내는 방식이라면,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림일기는 정지된 그림과 문자언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의 기본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그림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글과 그림의 의미 구성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그림일기에서의 인물 표현 방식

소설과 같이 전문화된 내러티브에서 인물은 전달자가 그 인물의 외형을 직접 묘사하거나 행동을 관찰하여 보고하는 방식, 또는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인용하는 방식 등 여러 형태를 통해 표현된다. 그런데 소설과 달리 그림책은 인물보다는 플롯이 중심이 되며 그 플롯 또한 인물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는 길이가 짧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은 대개 동적이기보다 정적이며, 입체적이기보다 평면적으로 그려진다(Nikolajeva & Scott, 2001).

그림일기는 내러티브의 진입 단계에 있는 미숙한 스토리텔러들이 제작하는 것인 만큼 인물의

6) 이 연구에서 수집한 아동의 그림일기는 1차적으로는 복합양식 문식성 실천의 측면에서 분석된 바 있다(Ok & Seo, 2011). Ok & Seo(2011)의 논의가 그림일기 구성 요소 중 그림의 역할에 주목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면,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글과 그림의 관계 및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이 있다.

형상화는 더욱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에서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경험(p. 12)’을 초등학교 1학년 쓰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도 이 발달 단계가 비로소 문자 언어로 인물이나 사물을 형상화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지점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그림일기는 교사나 부모와 같이 등장 인물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작 활동인 만큼 ‘나’를 비롯하여 ‘나’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독자들이 충분한 정

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등장인물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일기에서도 인물에 대한 형상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영역은 등장인물들을 설정하고 또 각 인물들을 상세화하는 데 기여한다. 먼저 인물의 설정이란 글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인물의 숫자, 성별, 위치 등 그림일기 속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Figure 1을 보면 글 내용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오리구이를 먹었습



<Figure 1> Setting the characters by pictures

7) 그림일기를 제작하는 아동은 부모나 교사를 자신의 그림일기를 읽는 독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그림일기 속 그림에 ‘이름 붙이기’를 하는 아동의 그림일기 제작 양상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Ok & Seo, 2011).

니다. 고기가 맛있어서 환타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⁸⁾와 같이 시작하며, 그림 영역은 글에서 언급된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고 어떤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전체 251편 중 171편의 그림일기에서 그림 영역이 Figure 1과 같은 방식, 즉 인물들은 전체 배경 속에서 작게 그려지고 각 인물의 특성보다는 행동의 윤곽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등장인물을 변별적으로 형상화하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어느 부분을 강조하여 독자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한 아동들의 선택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그림을 통한 등장인물의 상세화란 등장인물들을 클로즈업하여 글에서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외양, 의상, 심리 상태, 행동 등을 상세히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Figure 1에서는 원거리에서 배경과 함께 등장인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Figure 2에서는 배경이 배제된 채 각 인물의 특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Figure 2에서는 각 인물의 키가 다르고 머리모양이나 의상도 다르게 표현되며, 무엇보다도 각 인물에 대한 이름 붙이기를 통해 독자들이 인물을 쉽게 차별화할 수 있도록



<Figure 2> Highlighting the characters by pictures

8) 이 연구의 초점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와 같은 문법 요소에 있지 않은 만큼 아동들이 글로 쓴 부분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이하 동일).

안내하고 있다. Figure 2와 같이 인물만 부각하는 방식은 여자 아동들의 그림일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전체 배경 속에서 인물들의 행동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남자 아동들의 그림일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추후 남녀 아동들이 그림일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차별적인 양상과 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심층 연구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인물은 글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글을 통한 인물의 형상화는 ‘나’로 집중되며, ‘나’ 이외의 인물에 대한 관심은 글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Figure 1의 ‘난 고기도 잘 먹지만 해물 종류의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와 같은 부분에서 잘 드러나듯이 ‘나’에 대한 형상화는 주로 개인의 기호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난 느낌 및 기분을 제시하는 형태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학년 학습자들에게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일기라는 표현 장르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그림일기에서의 사건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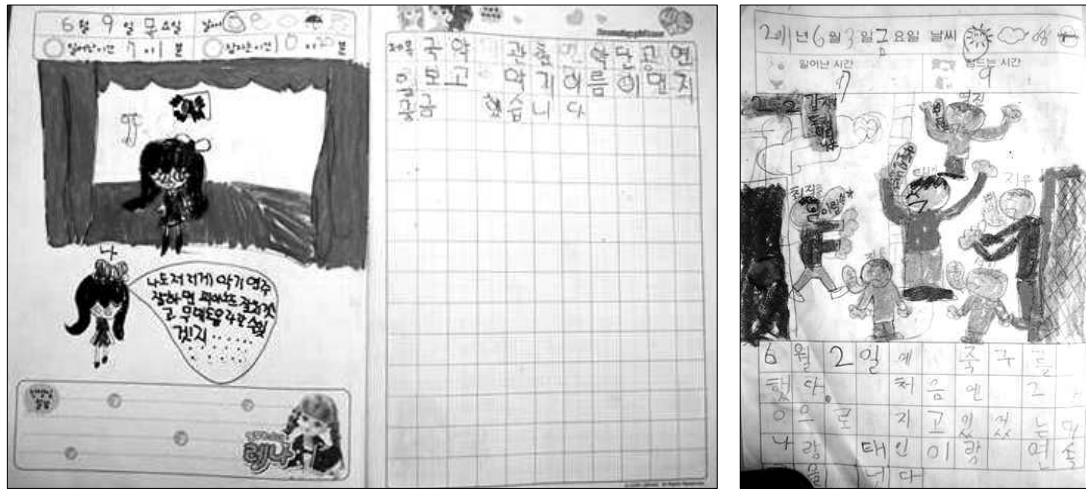
그림책의 경우 사건의 전개 과정은 여러 페이지에 나뉘어 제시되고 각 페이지에 삽입되는 그림은 해당 페이지에서 전개되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러나 그림일기의 경우 그림이 삽입되는 공간이 한 곳으로 제약되므로 아동들은 대체로 당일의 사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표현하기 쉬운 어느 한 순간을 선택하

여 그림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제외한 사건의 전말은 글을 통해 기술한다. 분석 대상이었던 그림일기 251편 중 대다수인 216편은 이러한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삽입된 그림은 글에서 언급된 해당 순간을 정교화하고, 글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조명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들은 그림책의 저자와 같은 전문적인 스토리텔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일기에서 나타난 사건 전개는 그림책에 나타난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 방식을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모방하는 데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추후 아동에게 그림일기에 나타나는 모방의 과정을 메타적으로 인지하게 하여 보다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그림일기는 해당 순간을 정교화하거나 글 속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말풍선의 사용이 그 한 예이다. 말풍선은 총 251편 중 30편의 그림일기에서 사용되었으며, 전체 24명 아동 중 14명의 아동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1학년 아동이 그림일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그림 영역과 글 영역 간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그림일기에 말풍선이 차용되는 것은 아동들이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접하고 있는 만화 텍스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⁹⁾ 이는 아동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eo & Ok, 2012).

말풍선의 역할은 크게 둘로 구분하여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사건을 기술하거나 글에

9) 최근 정부 조사 결과(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에 따르면 만화 텍스트는 초등 아동들이 가장 즐겨 읽는 도서 유형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용 만화(17.4%)와 오락용 만화(15.1%)를 합친 비율이 32.5%로서 소설(17.7%), 위인전(8.1%) 등 다른 유형의 도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Two different uses of speech bubble in picture diaries

서 언급한 사건을 보다 정교화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Figure 3 참조). Figure 3의 왼쪽은 전자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글을 쓰는 부분에 기술한 내용(“국악 관현악단 공연을 보고 악기 이름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외에 새로운 내용, 즉 자신의 느낌(“나도 저렇게 악기 연주 잘하면 피아노도 잘 치겠고 무대도 올라갈 수 있겠지…….”)을 그림 영역에 말풍선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Figure 3의 오른쪽 일기는 다른 아동의 그림일기로서 글에는 “6월 2일에 축구를 했다. 처음엔 2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나랑 태인이랑 연속 골을 넣었다.”라고 기술하고 그림 영역의 말풍선에는 “이럴 수가.”, “야호 신난다.”, “와 만세.” 등과 같이 골이 들어간 순간에 다른 등장인물들이 보인 감정을 말풍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섯 편의 그림일기에서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가령 ‘고등을 두 개 잡아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산길 따라 가다가 고사리도 끊고 흔들바위를 가서 바위를 밀쳐 보았습니다.

기분이 떨렸습니다.’와 같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한 편의 그림 속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방식은 그림책과 같이 전체 사건이 분절적으로 제시될 수 없는 텍스트 환경에서 글로 표현된 주요 사건과 그림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한 편의 그림일기에서는 그림 영역에서 의도적인 화면 분할이 관찰되었다. 이 그림일기의 글에서 ‘나’는 운동회 날에 공굴리기, 달리기, 무용에 참여했던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림과 대응시키기 위해 만화 텍스트에서 지면을 분할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림 영역을 삼분하고 그 각각에다 무용하는 모습과 공 굴리는 모습, 그리고 달리기하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이러한 변형된 형태의 사건 전개 방식들은 모두 의미를 보다 완전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고민의 일환으로서, 아동들을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 간주하고 다른 아동들과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하는 것인 만큼 무표적(unmarked) 성격을 갖고 있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유표적인 경우에는 ‘어제’나 ‘토요일’과 같은 명시적인 단어가 제시된다.

배경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그림일기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림 영역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글자를 통해 상황 맥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Figure 4의 왼쪽 그림일기는 케이크를 만든 경험을 기술한 것으로, 그림 영역의 상단부에 ‘케이크 만들기!’라는 글을 크게 써 넣어 그림일기 속의 상황을 독자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오른쪽은 닌텐도를 가지고 놀았던 경험을 기술한 것으로, 그림의 내용은 ‘나’의 눈을 통해 관찰된 닌텐도의 화면이다. 이 일기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그림 영역에 ‘닌텐도 화면’, ‘내 차에 탄 악마’, ‘마리오 카트에 탄 악마’와 같은 글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중 ‘닌텐도 화면’은 그림 영역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메타 정보이며, 나머지 둘은 게임 속의 캐릭터에 대한 ‘나’의 설명인 셈이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그림일기를 통해 문식성 초기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복합양식 의미 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일기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그림일기의 글과 그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의 그림일기에서 글과 그림은 다양한 형태

로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들은 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해 글과 그림 모두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기 쓰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글을 통해 인물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림을 통해 등장인물들을 설정하고 또 각 인물들을 상세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들은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 글과 그림을 사용하는데, 대체로 그림을 통해 글에서 언급된 해당 순간을 정교화하거나 글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배경 제시를 위해 글과 그림 모두를 동원하여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는 그림일기 제작 활동이 본격적인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으로 옮겨가는 중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 사라지는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복합양식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각종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복합양식 텍스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러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OECD, 2011).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의 출발점은 그림일기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기호들이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는 데 있다. 그림일기를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동안 그림일기와 관련된 교육 활동에서 간과해 온 부분들을 되돌아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지적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아동들은 줄곧 그림을 그린다. 때론 글을 쓰고 그 글과 관련된 삽화도 그린다. 글뿐 아니라 그림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평을 달지만 그 성격은 사뭇 다르다. 글과는 달리 그림은 교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글에 주로 붙는 비평 -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잘 이해가 안 됨’, ‘철자가 틀렸음!’, ‘어색한 표현임’ 등 - 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림은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단지 자기표현(self-expression)으로 간주되며, 가르쳐야 할 무엇이라기보다는 아동들이 이미 할 수 있는 무엇으로 인식된다. (Kress & van Leeuwen, 2006 : 16)

이러한 지적은 그림일기에 대해 단지 숙제 검사의 일환으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거나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글자나 문구를 고쳐주는 수준에서 피드백을 마무리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그 텍스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정신적 과정을 추적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효과적인 의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 단지 수동적으로 그림일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 구성 방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그림일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인식하여 예상 독자를 상정하고, 그 독자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과 생각한 것을 보다 온전한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아동들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른 기호 체계와 다른 장르의 텍스트에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그러한 의미 구성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셋째, 아동들 간에 그림일기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아동들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10편의 그림일기를 일관되게 제작하는가 하면, 또 다른 아동들은 말풍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하면서 지면이라는 2차원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완전한 형태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향후 그림일기,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양식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때는 단지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아동들 간에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의 레퍼토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그림 영역의 상당 부분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일기는 글과 그림을 결합한 텍스트 제작 방식을 학습한다는 일차적인 목적 외에 그림을 촉발 단서로 삼아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글쓰기의 초기 단계에서 아동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소재의 고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다양한 쓸 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Byun, Y. H., & Hyun, E. J. (2002). Semiotic analysis of words and pictures in picture book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2(2), 339-362.

- Brandts, D. (1998). Sponsors of literac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49(2), 165-185.
- Cho, K. K. (2010). Von der Textlinguistik zur Textsemiotik - Ein integrativer Ansatz zur Analyse von sprachlich-bildlichen Texten. *Germanistik*, 115, 275-301.
- Choi, K. E. (2005). Die Entwicklung der Medien und die Veränderung des Text-Begriffs.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Deutschunterricht*, 34, 251-268.
- Choi, Y. H. (2004). La typologie du rapport entre langage et image. *Semiotic Inquiry*, 16, 425-447.
- Cope, B., & Kalantzis, M. (Eds.). (2000). *Multiliteracies : Literacy learning and the design of social futures*. New York : Routledge.
- Fang, Z. (1996). Illustrations, text, and the child reader : What are pictures in children's storybooks for? *Reading Horizons*, 37, 130-142.
- Halliday, M. A. 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2nd ed.). London : Arnold.
- Hyun, E. J., Kang, E., J., Byun, Y. H., & Shim, H. B. (2004). *Reading pictures of picturebooks*. Seoul : Marubeol.
- Hyun, E. J., Park, S. Y., & Cho, M. H. (2011). Young children's literary responses to the realistic picture books reflecting the current social issue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2(2), 75-99.
- Jewitt, C., & Kress, G. (2003). A multimodal approach to research in education. In S. Goodman, T. Lillis, J. Maybin, & N. Mercer (Eds.), *Language, literacy, and education : A reader* (pp. 277-293). Stoke on Trent, UK : Open University.
- Joung, Y. H. (2008). Wechselbeziehung von Text und Bild - mit Bezug auf die mediale berlagerung und Transformation vom Zeichen der Schrift. *The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22, 177-201.
- Kang, B. C. (2012). Multimodale Metaphern in der Werbeanzeige als Sprache-Bild-Text - Am Beispiel der Finanzwerbung in Der Spiegel. *Germanistik*, 122, 5-28.
- Kim, I. S. (Ed.). (1993). *Image and writing*. Seoul : Segyesa.
- Lee, C. S., Cho, K. S., & Hyun, E. J. (2011). The Effects of the literature program using information picture book or narrative picture book activities on preschoolers' writing 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7, 167-191.
- Martinec, R., & Salway, A. (2005). A system for image - text relations in new (and old) media. *Visual Communication*, 4(3), 337-371.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2011 national reading survey*. Seoul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Nerlich, M. (1990). Qu'est-ce qu'un Iconotexte? in Iconotexte, Paris : Ophrys.
- Nikolajeva, M., & Scott, C. (2000). The dynamic of picturebook communication.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31(4), 225-239.
- Nikolajeva, M., & Scott, C. (2001). *How picturebooks work*. New York : Routledge.
- OECD (2011). *PISA 2009 results : Students online*.

Paris : OECD.

Ok, H., & Seo, S. H. (2011). Analysis of the first graders' multimodal literacy practices in picture diary composition. *Journal of Elementary Korean Education, 46*, 219-243.

Park, I. W. (1995). Text and image. *Semiotic Inquiry, 1*, 383-407.

Ryu, E. (2010). Logic of discourse : From oral performance to digital-storytelling. *Foreign Literature Studies, 39*, 77-98.

Schwarcz, J. H. (1982). *Ways of the illustrator : Visual communication in children's literatur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eo, S. H., & Ok, H. (2012). Analysis of the patterns of literacy sponsorship in the first grader's picture diary composition. *Journal of Elementary Korean Education, 48*, 63-85.

Shim, H. B., & Hyun, E. J. (2010). The nature of young children's informational picturebook read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3), 33-49.

Shin, M. S. (2000). Cultural meaning of advertising text and Korean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103*, 79-106.

2013년 4월 31일 투고, 2013년 8월 8일 수정
2013년 8월 13일 채택